

광주 고급 아파트 도둑 '활개'

'인건비 절감' 경비원 줄여 방법 허술 '버튼식 잠금장치' 확산 범행 쉬워져

최근 광주시 동구 운림동 K아파트 50대 부부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 도둑은 일차 드라이버로 현관의 버튼식 잠금장치를 부순 뒤, 진주와 귀금속 등을 훔쳐 달아났다. 대낮에 요란스런 '작업'이 벌어졌지만, 이웃들은 전혀 도둑이 든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광주시 북구 두암동 H아파트 김모(53)씨는 외출 후 돌아왔다가 벌어진 일을 다물지 못했다. 현관이 퐁퐁 열려져 나가 집 밖에 나뭇길과 있었던 것이다. 집 안에 있던 양주와 현금 등은 도둑이 싸쓸이해간 뒤였다.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사라진지 오래되면서 그동안 '철옹성'이라 여겨졌던 아파트가 도둑들의 범행 대상이 되고 있다. 고급 아파트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버튼식 잠금장치는 오히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버튼식 잠금장치는 훼손됐을 때 경보음이 울리는 것과 울리지 않는 제품이 있는데, 후자만 골라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도둑들은 순간적으로 9V 전류를 흘려 보내 잠금장치 내부에 있는 건전지와 센서를 망가뜨리는 '전자충격기'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방범시대'에도 '아날로그 자물쇠'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도 도둑들의 범행을 부추기고 있다. 과거 각 라인마다 경비원들이 있었지만, 최근 대부분의 아파트가 1개 동에 한 명만 배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 감시적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서, 아파트 경비원은 급속도로 모습을 감추고 있다. 올해 경비원의 최저임금은 법정 기준(시급 3천480원)의 70%인 2천436원에 불과하지만, 광주 시내 곳곳에서는 이미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이뤄졌다.

북구 용봉동 S아파트는 최근 경비원을 14명에서 8명으로, 각화동 K아파트는 33명에서 25명으로 각각 줄었다. 북구 문흥동 W아파트는 전체 5명의 경비원 중 3명의 근무시간을 밤 10시 이전으로 단축시켰다. 이외 상당수 아파트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새벽 시간에 등 하루 3~4시간 경비원 휴식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버튼식 잠금장치 외에 보조키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훨씬 도움이 된다"면서 "도둑들이 CCTV에 모습이 찍히는 것을 교묘히 피하는 등 수법도 날로 능숙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22명이 아파트 등을 털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불안한 전자키 광주시 동구 모 아파트에 설치된 무인경비 시스템. 최근 전자키 확산과 경비원 감소를 틈타 아파트 전문 털이범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아리랑 3호=국내 기술로 첫 개발되는 다목적 저궤도(450~800km) 위성. 예산 2천872억원. 2009년 9월 발사돼 관측·해양오염·산불·군사정찰 등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가로 세로 70cm 물체가 사진에서 한 점으로 표시될 정도로 해상도가 높고, 약천후나 야간에도 관측이 가능하다.

보좌관 이씨는 "입찰이 불공정했다"는 제보를 받고 입찰 경우 등 관련 자료를 정당하게 요구했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연환수

자리 소개 금품수수 노점상 칼부림

광주 서부경찰은 지난달 31일 노점상 자리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흉기를 휘두른 안모(36·광주시 남구 월산동·노점상)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달 24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 강모(39·노점상)씨의 집에서 "좋은 노점 자리를 소개해준다며 100만원을 건넸으나, 행사가 취소됐는데도 돈을 갚지 않는다"고 따지는 강씨를 흉기로 찌르고, 부인 김모(여·25)씨에게도 상처를 입힌 혐의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與 국회의원 보좌관이 아리랑 3호 기밀 누설

외국기업 로비스트에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31일 다목적 실용 위성 아리랑 3호 사업과 관련해 국가기밀을 외국 기업 관계자에게 넘긴 혐의(공무상 기밀누설)로 현직 여당 의원 보좌관 이모씨와 이 정보를 건네받은 외국 기업 로비스트 이모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보좌관 이씨는 지난

해 4월께 아리랑 3호 사업과 관련한 촬영장치 입찰 정보 등을 로비스트 신분인 한국계 미국인 이모씨를 통해 러시아 기업에 건넨 혐의다.

러시아 업체는 아리랑 3호의 촬영장치 입찰에서 탈락하자 로비스트 이씨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한국 측에 입찰의 불공정성을 제기하려다 자료를 불법 입수한 사실이 검찰에 포착됐다.

설 선물 택배 '비상'

전남체신청, 냉장차 고작 4대 보유

민속 최대 명절을 앞두고 전남 체신청에 비상이 걸렸다. 폭주할 농산물과 수산물 소포 물량을 고작 4대뿐인 냉장차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남체신청에 따르면 오는 설(2월 18일) 소포 우편물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45만4천969통)보다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선도 유지가 중요한 냉장 상품 수송을 위한 냉장 차량이 단 4대에 불과하다.

설 명절의 경우 하루 소포 처리 물량이 평소(3만2천400통)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나고 단기간에 배달 물량이 폭주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냉장 차량의 부족은 배달을 지연시켜 배송 사고로 이어지는 등 배송 서비스에 차질을 빚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전남체신청에서 우체국 쇼핑(mall.epost.go.kr)을 통해 전국으로 공급하는

특산품 중 가장 많이 취급하는 품목은 배달 신선도가 관건인 농·수산물. 광주·전남지역 1천491개 상품에서 농산물(417개)과 수산물(95개) 등이 차지하는 비율만 94.7%에 이른다.

전국으로 공급하는 우체국 특산물량도 전국 8개 체신청 중 가장 많다. 매출액도 ▲2001년 174억 ▲2002년 197억 ▲2003년 201억 ▲2004년 204억 ▲2005년 189억 등 매년 200억원 등 두 번 째다.

전남체신청은 관계자는 "자칫 배송 사고가 늘어날 경우 타지역 소비자들로부터 광주·전남 지역 특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며 "2월 초 완도 지역에 1t 냉장차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비상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우기자 dok2000@

나원침 (7043) 김장독



광주광역시 중구 중앙동 1가 11-1번지 1층
수원신도시 피오레
문의: 062-367-9000

광주 광천시장 화재

점포 6동 불에 타...인명피해 없어

지난달 31일 오후 5시께 광주시 서구 광천동 광천시장에서 불이 나 점포 6동이 전소 또는 반소됐다. 시장 안에 있던 상인과 손님 등 50여 명이 긴급 대피,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광천시장은 지하 1층 지상 2층 철근콘크리트 건물(연면적 3천698㎡)로 지하와 1층엔 소매 점포와 창고 등 모두 21개의 점포가 입주해 있다.

하지만 2층엔 18세대 5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건물보수·수리까지 상당기간 집을 비울 수밖에 없어 큰 불편이 예상된다.

목격자 최배영(65)씨는 "누군가 '불이야'라고 소리쳐 가보니 폐박스를 모아둔 점포에서 불이 치솟았다"며 "자체 진화를 시도했지만 불길이너무 거세 실패했다"고 말했다.

불이 나자 소방서 측은 소방차 20여 대와 소방대원 60명을 동원, 1시간 30분 만에 완전 진화했다.

경찰은 이날 화재가 담뱃불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방화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남총련 의장 5년 구형

광주지검 공안부는 지난해 11월 광주시청 앞에서 열린 반 FTA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등소 구속 기소된 남총련 의장 김모(23)씨에 대해 지난달 31일 징역 5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프타 하역 중 폐기물 몰래 버려

○여수해양경찰은 지난달 31일 폐기물을 바다에 버린 싱가포르 국적 4만1503급 'Tormsara' 호 기관장 P씨(47)를 검거.

○해경에 따르면 P씨는 지난 29일 오전 11시40분께 여수시 낙동동 부두에서 나프타 3만t을 하역하던 중 탄소가루인 검댕 1.5kg을 유출해 바다를 오염 시켰다는 것.

○해경 관계자는 "인화점이 낮은 나프타의 자연발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화물 탱크에 주입한 불활성 가스가 제대로 연소되지 못해 냉각수와 함께 유출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서인봉 광주시의원 당선 무효형 선고

광주지법 제4형사부(김재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5·31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수백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광주시의원 서인봉(47)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건네고 선관위에 재산을 축소 신고하는 등 선거과정에서 공정하고 깨끗한 행동을 하지 못한 점이 인정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원봉사자 5명에게 200여만원을 지급하고, 후보자 등록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에 기소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제약품 기업성과 혁신 혹은 혁신, 신약개발, 제품개발, 마케팅, 서비스, 고객 만족, 품질, 안전, 건강, 행복을 추구합니다.

“어보” 사랑에!

“엄마” 사랑해요! “어보” 사랑해!

한마디 말로도 당신곁에 건강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사람의 병에는 약력의 화학작용 이외에 마음의 화학작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약품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약보다 사랑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 한걸음 한걸음 다가설 때마다 국제약품은 무엇을 베풀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베풀었던 것 같습니다. 약력의 과학과 함께 사랑의 힘을 믿는 회사 사람으로 건강해 지는 세상 국제약품이 앞장서겠습니다. 국제약품은 사랑의 효능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 국제약품

국제약품 http://www.kukjeopharm.co.kr

SENSTICK